



2026. 6. 19 (금)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美연준 금리 '매파적 동결'...韓 내달 인상 전망

국제신문 <https://zrr.kr/2NPUbX>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상 같은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한국도 금리 인상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중동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양국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는 분위기

지방 건설 경기 부진에...3단계 스트레스 DSR 6개월 더 유예

서울경제 <https://zrr.kr/POc76>

금융위원회가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12월 말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 폭이 커지고 있으나 주식 투자와 수도권 주택 거래 영향이 커 지방 주담대 규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온라인 대환대출 고작 800건 ... 소상공인 외면에 실적 미미

매일경제 <https://zrr.kr/fLc0K7>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시행 두 달여간 8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
그나마도 제도 취지와 달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위주로 갈아타기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

국민은행, KB금융에 1.4조 중간배당...주주환원 실탄 확보

디지털데일리 <https://zrr.kr/PCVFZc>

국민은행이 KB금융지주에 1조400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실시
금융권에서는 이를 KB금융의 주주환원 재원 확보 차원으로 전망... 은행 자회사 이익을 지주로 이전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지주 차원의 자본정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외인 떠나도 '9000피'..."우리가 끌어올릴게" 개미 '73조' 실탄 썼다

머니투데이 <https://zrr.kr/vKkDaj>

개인은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73조원어치를 사들이며 외국인의 순매도 공세를 막아내며 코스피 9000을 달성
투자자예탁금이 120조원인 만큼 1만피(코스피지수 1만)를 향한 개인의 실탄은 아직 충분하다는 분석

'부실기업 퇴출' 강화에... 시총 미달 상폐 첫 사례 등장

조선비즈 <https://zrr.kr/hCqZ4T>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 유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사례가 처음 등장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 유지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어서, 이른바 '한계기업'들의 퇴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

7월 보험료 인상 본격화... 메리츠화재 '전 상품 인상' 첫 신호탄

보험저널 <https://zrr.kr/HcHwdL>

금융당국의 해지율·손해율 가이드라인 반영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상품 수익성 검증에 속도를 내는 모습
메리츠화재가 영업 현장에 '전 상품 인상' 안내를 전달하면서 7월 상품 개정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

은행권은 빚 탕감 경쟁...보험권 포용금융은 '보장갭 완화'가 관건

보험매일 <https://zrr.kr/1uWYaz>

은행권이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채무 감면을 앞세워 포용금융 실적 확보에 나선 가운데, 보험권에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장갭 축소가 주요 과제로 부상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제도화 흐름 속에서 보험권은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에 맞춰 보장 공백을 줄이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

코인거래소 대주주 심사, 디지털자산법으로

한국경제 <https://zrr.kr/1xHppL>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는 방안이 추진
은행, 보험사 등 기존 금융회사처럼 사업자 진입규제는 업권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 카이아 블록체인 기반으로 31억원어치 발행

뉴스1 <https://zrr.kr/j1ILCs>

JPYC의 카이아 블록체인 기반 유통액이 3억 3000만 엔을 돌파하며 JPYC 발행 블록체인 플랫폼 가운데 일본 내 1위를 기록
카이아는 이더리움가상머신(EVM) 호환성, 가스비(거래 수수료) 대납 기능 등을 지원... 이 같은 기능 덕분에 카이아 기반 JPYC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카이아 측은 분석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